



광주·전남 첫 특급호텔 ‘호텔현대’ 문연다

광주·전남 최초의 특급 호텔 ‘호텔 현대’가 16일 개관한다.

호텔 현대는 총 7천평의 대지위에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208 실의 객실과 500명 수용할 수 있는 대연회장을 비롯해 회의실 등 다양한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객실 발코니에서 일출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한 쪽의 그림자는 다도해 풍광을 객실에서 만끽할 수 있어 투숙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영암에 대연회장 등 갖춰 국제행사 유치 탄력

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995년 7월 마르코 폴로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착공했던 호텔 현대는 준공을 목전에 둔 1997년 11월 모기업인 한라중공업 부도로 채권단인 금융기관이 관리해오다 올 1월 현대삼호중공업이 약 200억원을 들여 인수, 6개월여 공사 끝에 문을 열게 됐다.

호텔 현대 개관으로 그동안 특급 호텔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됐으며 전남 서남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숙박 서비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연간 수백명에 이르는 선주나 선박회사 관계자들에게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계약관련 VIP 의전, 선박명식 등의 이벤트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피서객들이 쏟아낸 불만...‘관광전남’ 현주소는

“재래식 화장실에 문도 없고...”

바가지 요금에 숙박·편의시설 엉망 “여행지중 최악...다신 안간다” 혹평

“재래식 변소에 문도 없고, 샤워장도 없고, 60년대식 시설에서 외지 손님을 받다니요”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특산물 파는 가게(무지 비쌌)만 있어서 제대로 관광할 수 없어요”

휴가철이 절정인 요즘, 전국 유명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끼고 있는 전남 도내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어김없이 피서지에서 겪은 불편과 불만의 글들이 올라와 ‘관광 전남’의 체면을 구기고 있다.

전남도청 민박 등 숙박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전국에 홍보해 관광수익 증대에 힘쓰고 있지만 일부 휴가지의 준비 소홀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전남지역 시·군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대부분의 피서객들은 깨끗하고 경치 좋다는 말에 기대를 갖지만 전남 지역을 찾았지만 바가지요금과 청결하지 못한 숙박시설, 불편함에 기분이 크게 상했다는 사연을 털어놓고

있다. 차모씨는 고흥군 나로도의 한 해변 민박마을이 너무 불쾌했다며 지난 6일 고흥군 홈페이지에 글을 실었다. “요즘 민박치고 60년대식 재래식 변소에서 외지 손님을 받는 일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군청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우주센터 관람 정보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불평까지 걸들었다.

‘중말~’이라는 ID를 가진 피서객은 “우전해수욕장 정말 짜증납니다”라는 제목으로 신안군청 홈페이지에 불평을 실었다. 주차시설도 엉망인데다 화장실은 지저분하고 먹거리도 별로였다는 것이다.

그는 “가족끼리 즐기 위해 간 우

전해수욕장은 지금껏 다녀본 여행지 중에서 최악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안에 처음 놀러갔었는데, 신안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불쾌해질 것 같아요. 관계자 여러분 좀 반성하셔야 될성실군요” 그는 불만에 가득찬 말로 지자체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피서지 바가지 요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이모씨는 지난 1일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명사십리 다신 안간다’라는 제목으로 불쾌한 경험을 소개했다. 백사장에 텐트를 쳐놓았는데 모 대기업 휴양팀이 자리 양보를 요구하더라는 것. 다른 데로 옮겼더니 또 다시 자리를 내라고 해 불쾌

하기 짝이 없었고 샤워장은 물도 잘 안나왔다는 그는 “다신 명사십리 안 갈까 생각중”이라며 “전국에서 유명한 데가 이렇게 허접할줄 몰랐다”고 꼬집었다.

지난 6일 보성군청 홈페이지를 찾은 강모씨는 녹차밭 주변 도로가 좁아 위험하고 값비싼 특산물 판매가게 때문에 제대로 관광을 즐기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군 관계자들은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상인들에게 친절교육을 강조하지만 매년 한꺼번에 피서객이 몰리는 바람에 일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연차적인 계획을 통해 휴양객들을 개선, 외부 휴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12일까지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등 피서객 불편사항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계절은 어김없이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다. 입추(立秋)를 하루 앞둔 7일 낮 구례군 산동면 허미마을을 찾은 한 가족이 익어가는 단호박을 바라보며 성큼 다가온 가을을 얘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달 후면 광주는 비엔날레 열풍 12면

‘문재인 법무’ 철회할 듯

盧대통령 이르면 오늘 인선...김성호씨 유력

노무현 대통령은 빠르면 8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임 법무장관 인선과 관련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법무장관 인선과 관련한 내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문 전 수석을 장관으로 지명할 경우의 장단점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문 전 수석외에 다른 후보를 검토하라’는 식으로 노 대통령 명령의 분명함 지점이 내리지는 않았으나, 문 전 수석을 지명할 경우 당파의 관계 등 정치적 부담도 함께 검토

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문 전 수석을 장관으로 지명하지 않을 경우, 유력한 복수 후보로 검토돼오던 김성호 국가청렴위 사무처장의 기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 교육부총리는 이번 주 중 후보군을 선별하고 압축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내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가막만 등 여수해역 적조주의보

국립수산과학원은 7일 오후 6시를 기해 여수해역(가막만, 금오수도, 금오도동안, 장수만, 돌산동안)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

수산과학원은 7일 여수해역에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밀도가 m당 250~600개체가 출현, 주의보를 발령했다. 유해성 적조생물의 밀도가 m당 300개체 이상이면 적조주의보가 발령되며 1천개체 이상이면 경보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양식 어민들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적조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먹이 공급 조절 및 중단과 산소공급기 등 방제장비를 동원해 양식장을 철저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무더위속 立秋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계절은 어김없이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다. 입추(立秋)를 하루 앞둔 7일 낮 구례군 산동면 허미마을을 찾은 한 가족이 익어가는 단호박을 바라보며 성큼 다가온 가을을 얘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법조비리’ 前 부장판사 사전영장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7일 김씨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카펫 등을 받고 민·형사 사건에 개입한 혐의(특가법 알선수재)로 조모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검찰은 또 김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는 김모 전 검사와 3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고 있는 민모 총경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장판사는 양평 TPC 골프장 사업권을 둘러싼

민사 소송에 개입하는 등 5~6건의 민·형사 사건과 행정소송에 개입하면서 청탁 대가로 막대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공익활동 장학금 500만 원 지원
남부대학교
http://www.nabun.ac.kr
▶ 입학문의 062-979-4114 ▶ 11:00~18:00
새로 일어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 입학문의 062-3531 ▶ T.061-360-5000

좋은 사람 좋은 여생 - 성공은 마땅과 함께 하면 기쁨이 두배가 됩니다. (이 모든 유망정보들이 무료입니다)

부동산
 - 3,480,000
 - 3,480,000
 - 3,290,000
 - 3,440,000
 - 2,780,000
 - 2,890,000

주식
 - 1,490,000
 - 1,390,000
 - 1,490,000
 - 1,390,000
 - 1,490,000
 - 1,390,000

미주대행주
 - 1,180,000
 - 1,180,000
 - 1,180,000
 - 1,180,000
 - 1,180,000
 - 1,180,000

남부대학교
 - 1,180,000
 - 1,180,000
 - 1,180,000
 - 1,180,000
 - 1,180,000
 - 1,180,000